

현대기아차, 코나·니로 앞세워 글로벌 전기차 '톱 10'

(SUV 기반 전기차)

(판매량 세계 8위)

작년 국내외서 9만860대 판매
폴크스바겐 제치고 톱10 진입

현대 코나EV, 기아 니로EV 등
SUV 기반 전기차 인기 영향
올해 쏘울 부스터 EV 등 가세

현대·기아자동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기반 신형 전기자동차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최초로 판매량 '톱 10'에 진입했다.

10일 자동차업계와 전기차 시장조사업체 EV세일즈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작년 한 해 국내외 시장에서 총 9만860대의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순수 전기차)를 판매하며 폴크스바겐(8만2685대)을 제치고 제조사별 순위 8위에 올랐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10위권 밖이었던 2017년(4만7000여



기아차 쏘울 부스터 EV

기아자동차

대)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규모다. 또 2016년(1만3000여대)과 비교하면 7배에 해당한다.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전문업체와 연간 판매량이 200만대 미만인 업체까지 포함한 전체 판매량 순위에서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지난 2012년 전기차를 일 반에 판매하기 시작한 지 6년 만이다.

이처럼 전기차 판매가 큰 폭으로 성장한 데는 현대차 코나EV, 기아차 니로EV 등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기반 신형 전기차가 등장한 영향이 컸다.

코나EV의 경우 지난해 국내외에서 2만2787대가 팔려 현대·기아차 전기차 모델 중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렸으며, 니로EV는 7362대가 판매됐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시장에서 SUV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각종 환경규제에 따른 친환경차 선호 현상이 겹치면서 전기 SUV 판매가 급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의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올해 10만대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나EV와 니로EV가 SUV 상승세와 맞물려 꾸준히 판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쏘울 부스터 EV(완전변경)와 더 뉴 아이오닉 EV(상품성 개선 모델) 등 신차 2종이 가세해세다.

쏘울 부스터 EV는 기존 대비 80% 이상 향상된 150kW의 출력을 확보했고 1회 충전 시 386km를 달릴 수 있어 기아차 전기차 중 최장의 주행거리를 갖는다.

더 뉴 아이오닉 EV도 배터리 용량과 동력 성능, 1회 충전 주행거리, 디자인 등이 기존 모델보다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 1위는 24만

5240대를 기록한 테슬라가 차지했다. 2위는 중국 비야디(BYD·22만9339대), 3위는 르노-닛산-미쓰비시(19만2711대)였다. 그 밑으로는 BMW(5위·14만2217대)와 현대·기아차(8위), 폴크스바겐(9위)을 제외하고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베이징자동차(4위·16만5369대), 상하이자동차(6위·12만3451대), 지리 자동차(7위·11만3516대), 체리 자동차(10위·6만5798대) 순이었다.

2017년 각각 9, 10위였던 제너럴 모터스(GM)와 도요타는 작년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한편 연간 글로벌 판매량이 200만대 이상인 완성차업체로 범위를 한정하면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르노-닛산-미쓰비시, BMW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현대·기아차는 이 순위에서 2016년부터 꾸준히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가장 많은 신차 등록대수를 기록중인 수입차종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작년 수입차 26만대 등록 '신기록' '벤츠 E클래스' 13.5% 압도적 1위

2019 수입차 집중 톱

수입자동차의 성장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수입차는 지난해 총 26만3548대의 신차가 등록돼 '신기록'을 달성했다. 기존 연간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2015년의 24만 7084대보다 2만 여대가 더 많이 팔린 셈이다.

10일 국내 차량 데이터 조사기관 카이즈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의 수입 승용차 브랜드 점유율 상위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토요타, 폴크스바겐, 렉서스 순이다.

벤츠는 7만대 돌파라는 업적을 세우며 2019년 1월에도 가장 많은 판매대수를 기록하는 등 '수입 차 판매왕'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화차논란'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낸 BMW는 전년보다 15% 이상 감소한 판매량과 5% 줄어든 점유율을 받아들여야 했다.

2018년의 수입차 1위 차종은 신차등록대수 3만5539대를 기록한 벤츠 E클래스다. E클래스는 수입차 전체의 13.5%에 달하는 역대 최고의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다. 2위는 2만3498대를 판매한 BMW 5시리즈, 3위는 9736대의 BMW 3시리즈가 차지했다.

4위 토요타 캠리와 5위 렉서스ES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앞세워 전년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판매를 재개한 폴크스바겐 티구안과 파사트, 아우디 A6는 10위권에 진입했다. 한편 가장 많이 팔린 수입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위의 영예는 7751대를 등록한 벤츠 GLC가 가져갔다.

새해 첫 달인 1월 수입 승용차 신차등록대수는 총 1만8411대로 전월 대비 11.2% 감소하며 다소 부진한 출발을 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3.3% 감소한 수치지만 아직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다.

1월 수입차 1위 차종 역시 벤츠 E클래스였다. E클래스의 신차등록대수 3392대는 제네시스 G80보다 183대 더 많은 수치다. 2위 렉서스ES는 신차효과를 꾸준히 유지하며 전월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3위 BMW 3시리즈는 3월로 예정된 완전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큰 폭의 할인 판매를 진행해 924대를 기록했고, 기존 주력 차종이었던 5시리즈는 4위까지 밀리며 라이벌 E클래스와 큰 격차를 보였다.

아우디 A6는 2018년형 모델의 할인 판매에 힘입어 6위에 올랐으며, 8위 벤츠CLS는 신차효과를 유지하며 3개월 연속 10위권에 진입했다. 9위 포드 익스플로러는 폴크스바겐 티구안의 물량 부족을 틈타 수입 SUV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1월의 수입 승용차 브랜드 점유율 상위는 벤츠, BMW, 렉서스, 토요타, 볼보 순이다. 벤츠는 지난해와 같이 수입차 판매 1위 브랜드다운 면모를 이어갔으며, BMW는 렉서스와 토요타를 합친 점유율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볼보는 SUV 모델인 XC60과 XC40의 신차등록대수가 늘어나면서 브랜드 점유율 5위로 올라섰다.

한편 벤츠 E클래스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들은 당분간 물량 수급과 할인 판매의 영향에 따라 순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벤츠를 제외한 나머지 브랜드간의 치열한 점유율 다툼도 전망된다. /정연우 기자

유화업계, 동남아 시장 투자 잔걸음

SK이노베이션·LG화학·효성 등 베트남서 법인 세우고 사업 확장 롯데케미칼, 인니 유화단지 조성

정부가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와 협력관계를 높이는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정유화학업계도 아세안국가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이 지난해 8월 동남아 투자를 전담하는 'SK동남아 투자회사'를 설립하고 초기 5억 달러를 출자한 데 이어 최근 또 5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투자 금액 중 베트남 정유화학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최대원 SK그룹 회장이 베트남 총리를 만나는 등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SK의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베트남에 석유광구 1개, 탐사광구 2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물차 휴게소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LG화학은 1995년 베트남 남부 동나이

성 고다우 공업단지에 디옥틸프탈레이트(DOP) 생산법인인 'LG화학 베트남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해 9월에는 베트남 빈펄스프와 전기차 및 스마트폰 등에 배터리 공급을 위한 전략적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MOU에는 빈펄스프의 전기 스쿠터에 LG화학이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화학은 향후 스마트폰과 전기 승용차, 전기 버스 배터리 등으로 협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LG화학 배터리는 베트남 북부 하이퐁에 건설중인 빈펄스프 자동차 생산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빈펄스프 그룹은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제조 기술과 인력 등을 제공받게 된다. 하이퐁 인근에는 LG화학의 편광판 공장도 건설 중이다.

효성은 지난 2007년에 베트남법인인, 2015년에 동나이법인을 각각 설립하고 베트남 사업을 꾸준히 키워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에 폴리프로필렌(PP) 생산·판매 법인인 효성비나케미칼을 세웠다. 당시 효성은 투자금 13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프로판 탈수 공

장(PDH)과 PP 생산 공장, 액화석유가스(LPG) 저장소, LPG 및 석유화학제품 부두 프로젝트 투자를 추진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효성은 LPG 저장소와 PP 생산 공장을 먼저 건립한 후, PDH 공장과 PP 2공장을 순차적으로 지을 계획이다.

PP는 LPG 탈수소화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프로필렌을 중합하면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원료다. 최근 베트남과 중국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2023년에는 연산 60만톤의 프로필렌과 PP를 생산할 수 있을 전망이다.

롯데케미칼은 자회사 롯데케미칼타이탄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4조원을 들여 석유화학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신동빈 회장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기도 했다. 롯데케미칼타이탄은 납사크래커와 하류부품 공장 등 대규모 유화단지를 건설해 2023년부터 상업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지능형 영상보안서비스, 인터넷 결합 땀 2만원대에 제공

KT '기가 아이즈' 프로모션 시행

KT는 지능형 영상보안 솔루션 '기가 아이즈(GiGAeyes)'의 인터넷 결합할인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KT 기가아이즈는 사업장에 설치된 카메라가 수집한 영상을 플랫폼에 저장, 분석해 실시간 풀고화질(FHD)급 화질로 제공하는 지능형 영상보안 서비스다.

이번 프로모션으로 기가아이즈 신규 가입고객이 KT 인터넷과 3년 약정으로 결합하면 매월 기가아이즈 요금에서 5500원이 할인되고 인터넷 요금도 10% 할인 받을 수 있다.

기가아이즈 카메라 1대를 이용할 경우 월 2만원 대(2만4750원, 부가세 포함)의 가격으로 지능형 보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기가아이즈는 고화질 영상 모니터링 및 저장뿐만 아니라 실시간 영상분석을 통해 이상이 감지되면 알람을 보내 위험 상황을 즉시 인지할 수 있다. 이용자 요청

시 KT 텔레캅의 전문 출동서비스를 월 2회 무료로 제공한다. 도난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보상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나인 기자 silkni@